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국내 초기청자 생산 메카”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 현장.

2차 조사 벽돌·진흙가마 6기 발굴 벽돌→진흙가마 이행 과정 보여줘 잔존상태 좋아 학술적 가치 기대

고창군이 전북도 기념물인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우리나라 청자 도입과 기술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지난해 1차 발굴조사를 통해 벽돌가마(전축요) 1기, 진흙가마(토축요) 4기, 건물지 2동 등이 확인됐다. 유적은 10세기 후반부터 운영돼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화되는 과정이 층위별로 잘 나타났으며 대형건물지가 확인되는 등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월14일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올해 2차 발굴조사는 초기청자 가마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남쪽과 서쪽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새로운 벽돌가마 1기와 진흙가마 5기, 건물지, 공방지 등이 추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벽돌가마는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진안 도동리 유적 등에서 모두 1기만이 확인됐으나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는 벽돌가마가 최소 2기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진흙가마에서는 5차례 이상의 보수 흔적이 발견됐고 석재 아궁이와 천정을 쌓기 위한 원형 보조물은 물론 청자 초벌간도 밝혀졌다.

벽돌가마 상층에 3호 진흙가마, 그 위에 또 4호 진흙가마가 있어 다른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중점양상이 나타나 '아파트형 가마터'의 형태가 확인되기도 했다.

석벽건물로 쌓아 올린 건물지에서는 많은 양의 평기와가 나왔다.

유물은 청자류, 갑발류, 기와류, 도기류가 출토됐고 특히 청자는 가장 이른 형식인 '선해무리굽'부터 '중국식 해무리굽', '한국식 해무리굽', '퇴화해무리굽'이 모두 확인돼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까지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는 벽돌가마 2기, 진흙가마 9기 등 총 11기의 초기청자 가마가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초기청자 가마터 중 단연 으뜸으로 고창 반암리가 우리나라 초기청자 생산의 메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학술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종민 충북대 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는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지방확산 및 기술이전을 알 수 있는 의미와 함께 벽돌가마(전축요)에서 진흙가마(토축요)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며 “잔존상태가 좋아 학술적 가치가 지대해 국가사적으로 지정·관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 성과가 매우 놀랍고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를 생산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를 비롯해 공방지 및 건물지 등 복합시설이 함께 확인됨으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유적 보존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자수 지킴이 박미애씨 전북도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고창군이 45년 이상 전통 자수의 길을 걸어온 박미애(사진)씨를 최근 전북도무형문화재 '자수장'(민수, 전통자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수장(刺繡匠)은 우리나라 전통 자수기법으로 견직물에 색실로 수를 놓는 전문 수공예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뜻한다.

박 씨는 1977년 어머니의 자수공방에서 정식으로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1983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한영화 선생과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으로부터 전통자수 기법인 공수(宮繡)와 민수(民繡) 등 표현기법들을 배운 뒤 고향인 고창에서 전수활동에 모든 힘을 쏟아 왔다.

박 씨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각종 전통공예대회에서 수상했고, 고창자수 가족전 6회 및 개인전 등 각종 전시와 꾸준한 작품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자수 보급에 힘써 왔다.

1990년부터는 어머니로부터 고창자수 공방을 인수받아 운영했고, 고창자수박물관 공방장, 행정실장 역임 및 현재는 고창전통자수 전수관과 체험장을 운영해 자수의 활성화 및 후학 양성 등 전통자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수상 후보 8월19일까지 접수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아 돼 굳어버린 '백제가요 정읍사여인'의 아름다운 부덕(婦德)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정읍사문화제 부도상'의 후보자 추천이 시작된다.

정읍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오는 9월24일과 25일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제33회 정읍사문화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제를 통해 시상할 부도상 수상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20일부터 8월19일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부도상은 남편과 부모를 공경하고 현신적인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뤄 사회적, 교육적으로 귀감이 되는 여성에게 주어진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춘향씨감자 공급 구슬땀... 19농가 100t 생산

지리산 고랭지서 자라 맛 좋아

남원시 시설감자 재배 농가들이 가을에 파종할 수 있는 고품질 씨감자 공급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모두 19농가 춘향씨감자 8.3ha를 재배해 120t을 생산했고 선별을 통해 100t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 춘향씨감자가 시설농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지리산 고랭지에서 자라 식감과 맛이 좋은데다 저장성이 좋고 강원도감자 보다 일찍 공급되기 때문이다.

씨감자는 지난 3월 정식한 뒤 관수, 시기별 약제 사용, 단계별 바이러스 감염 여부, 기타 병해충 감염 등 강원도 보급종과 동일한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전 포장에 통풍사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생산한 것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산농가 현장 지도를 수시로 실시, 더 나은 씨감자 생산을 위해 노력하며 고품질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운봉 춘향씨감자 저온큐어링센터 선별장에서 가을에 파종할 종자 감자 선별이 한창이다.

정읍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인기몰이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식 개장한 물놀이장에는 주말 이틀 동안에만 약 3500여 명의 물놀이객이 다녀갔다. 시는 깨끗한 수질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시설, 그리고 철저한 안전

전대책 등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곳 물놀이장에는 2030㎡ 면적의 어린이풀장과 유아풀장을 비롯해 샤워장과 물품보관소, 수유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또한 바디슬라이드와 워터터널, 워터드롭, 워터스프레이, 바닥분수 등 각종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기에 안성맞춤이다.

시는 이용객이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 청소와 물 교환 등을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시간 50분 후 휴식 시간 10분을 운영하고, 여과기를 이용해 깨끗한 물속에서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를 위해 안전요원 25명, 공무원 5명 등 총 30명의 운영인력을 배치했다.

물놀이장은 8월 2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옛 명지호텔 민간한옥 리모델링 한옥 숙박시설 조성

남원시가 과거 지역 내에서 명망 높았던 한옥호텔과 민간한옥을 리모델링해 가장 남원다운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설계공모에서 (주)지림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명지호텔, 남원가옥 그리고 남원유취' 작품이 당선작에 뽑혔다고 밝혔다.

시는 이 당선작을 기반으로 옛 '명지호텔(현 '중가' 한정식집), 주변 4채의 민간한옥을 리모델링해 머무는 것 자체가 관광이 되고 여행의 동기가 되는 매력도 높은 숙박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 대상인 옛 명지호텔은 195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명지장' '명지각' 등의 이름으로 운영됐던 유명 한옥호텔이다.

시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에 따라 확보된 국비 39억원을 비롯한 총 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곳을 15객실 규모의 고품격 한옥호텔로 조성한다.

설계는 올해 12월까지, 착공은 2023년 상반기, 준공과 개관은 같은 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